바이올린은 '나의 운명'

부산 출신 바이올린 제작자 강정순씨 광주에 숍 오픈

지난 3월 일본국제교류기금 주최로 열린 한·일 음악가 교류 연주회에 참석한 김원호씨는 공연 전날 바이올린이 말썽을 일으켜 애를 끓였다. 스위스 바젤에 거주하고 있는 그가 비행기를 통해 운반한 바이올린이 이상이 생겼던 것. 밤 늦게서야 지역에서 바이올린을 수리할 사람을 찾았고, 이쪽 저쪽 수소문하던 그에게 도움을 준 이가 바이올린 제작자 강정순(44)씨였다.

강씨는 지난해 6월 광주시 북구 광주예고 인근 한 아파트 상가에 바이올린숍을 열고 바이올린 제작과 수리를 병행하고 있다.

영국 뉴왁 바이올린 제작학교(Newwark school of violin making)를 졸업한 강씨의 이력은 특이하다.

경남 김해 출신으로 금속공학을 전공한 강씨는 창원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바이올린 제작을 배웠다. 어렸을 때 첼로를 배웠고, 대학 관현악반에서 활동했던 그는 1년간 주말이면 대구의 전문가를 찾아갔다. 월급의 절반이 들어간 과감한 투자였다. 직장생활을 하며 유학을 가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 등에 정보가 많지 않아서 학교를 찾는 것만도 엄청난 일이었다. 2년 동안 수소문한 끝에 다행히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 곳을 두드려봤지만 교육 과정, 언어문제 등 여러가지 면 때문에 적당한 곳을 찾지 못했다. 결국 바이올린 공부는 포기하고 또 다른 관심사였던 미술사를 공부하기 위해 영국으로 떠났다."

금속공학 전공, 영국서 미술사 공부 중 뉴왁 바이올린제작학교 입학 차석 졸업

영국 노팅엄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그는 우연히 한국 사람을 알게됐다. 그가 살고 있는 뉴왁으로 놀러간 강씨는 '운명처럼' 바이올린 제작학교를 만났고 미친듯이 공부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라 미술사 공부를 접고 바로 입학했다. 1년에 바이올린 두개를 만드는 게 기본 과정이다. 이듬해 비올라 제작과 현악기 수리, 3년째 되는 해 첼로를 하나 만들거나 바이올린 2개를 만든다. 근데 한달만에 바이올린 1개를 완성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 졸업 때는 차석을 하기도 했고. 여동생도 함께 학교를 다녔는데, 남매가 함께 졸업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강씨가 지금까지 제작한 현악기는 70여대 정도 된다. 보통 바이올린 1대를 만드는 데 120시간, 첼로는 420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금속공학과 출신으로 미술사를 전공하다 바이올린 제작자로 돌아선 강정순씨는 좋은 소리를 찾아낼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악기 제작 매카니즘이 아주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악기 역시 아름다운 공예품인데, 그게 사용 가능해야 한다. 쓰임새와 아름다움, 여기에 연주자가 편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까지 어우러져야 멋진 악기가 만들어진다. 악기는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 100인 100색의 소리를 낸다. 동일한 악기를 가지고도 연주자, 날씨 등 여건에 따라 다른 소리가 나는 게 악기 제작의 매력이다. 내가 제작한 악기에서 '좋은 소리'를 찾는 건 공식이 없다. 경험치다. 제작보다는 수리가 훨씬 어렵다. 제작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악기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건 아주 어렵다."

2006년 캐나다로 건너간 강씨는 캘거리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 근무하며 악기 관리하는 일을 했다. 2009년 미국에 살고 계시던 부모님이 한국으로 들어와 시골에 정착하길 희망했고, 3개월 장기 휴가를 낸 강씨는 남원귀농학교에 입학,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때 귀농학교에서 만난 사람의 지금의 아내다. 영광 출신인 아내와 사귀면서 자연스레 영광이 삶터가 됐다. 이후 땅을 구입하고 몇년 동안 집을 짓고 영광 불갑사 인근에 정착했다.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곳이다. 시골에서 바이올린을 제작하고 수리하는 걸 업으로 삼는 건 어려운 일이다.

현악기 70대 제작… '악기 컬렉션' 목표 악기 수리 서울로… 지역성 깨기 어려워

"내가 무데뽀 기질이 좀 있다. 영광에서 가까운 목포대 김농학 교수에게 무작정 연락을 했다. 영광에서 악기 만드는 사람인데 내 바이올린 한번 봐달라고. 선생님이 악기 수리를 맡긴 후 만족해했고, 여러곳에 소개시켜줘 연착륙한 셈이다. 하지만 모든 게 서울로만 몰리는 상황에서 지역성·변방성을 깨는 건 아직 어렵다."

미술사와 예술사에 관심이 많아 광주국립박물관을 자주 찾는 강씨가 꾸는 꿈은 '악기 컬렉션'이다.

"시대마다 기준이 되는 악기들이 있다. 메이커별로 제작자별로, 또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악기들을 전문 컬렉터와 함께 꾸준히 모으려 한다. 좋은 악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26회 광주시미술대전 745점 수상

10개 부문 1349점 출품… 29일부터 비엔날레전시관서 입상작 공개

제26회 광주시미술대전에서 '시선II'를 출품한 박현희(41·여수)씨가 서양화(수채화) 부문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화 부문에서는 송영학(30·광주)씨가 '므흣한 질주'로 대상을 차지했다.〈명단 광주일보 홈페이지 참조〉

광주시와 광주시미술협회는 지난 12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제26회 광주시미술대전 심사위원회를 열고 서양화, 건축, 서예, 조각, 한국화, 문인화 등 6개 부문 6개 작품을 대상으로, 8개 부문 11개 작품을 최우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광주시미술대전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1349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모두 745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와 작품은 ▲서예 정광소(72·광주) '왕가시' ▲조각 배수민(27·광주) 'Beautiful loser' ▲건축 주미희·박종일·김정민(광주) 'passage boutique hotel' ▲문인화 김향란(64·광주) '전가소견' 등이다.

각 부문별 대상과 최우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만 원과 200만 원의 상금이 시상된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후 광주시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린다.

서양화 대상 박현희 작 '시선II'

입상작은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일간 광주시비엔날레전시관에서 지역 미술계를 대표하는 추천·초대작가 작품과 함께 전시된다. 062-222-805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한지에 스민 바람

강운 개인전 31일까지 갤러리 리채

자신만의 조형언어로 자연을 화폭에 담고 있는 '구름' 작가 강운. 반투명한 한지를 중첩시켜 바람이 머물다가는 이미지들을 구름으로 표현해 내는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작가가 떠올라 그에게 구름 이미지가 굳어졌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매번 새로운 시도로, 또 다른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공통점이라면 모든 작품이 자연에 대한 통찰과 개인적 사유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가 구름과 바람 등 자연에너지를 자연 매체와 사진 등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들고 8년 만에 광주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오는 31일까지 갤러리 리채.

작가는 '바람, 놀다'라는 큰 주제 아래 바람이라는 자연현상이 갖는 물리적인 특성을 자각하고, 인간의 삶 안에서 '바람'이 갖는 철학적, 상징적, 회화적 의미를 고찰한다.

'바람, 놀다' 작업에서는 꽃과 한지로 오려붙인 문살의 이미지를 조형화시켜 각 계절의 느낌을 전달한다. 무수한 한지의 겹침이 만들어내는 백색이 인상적이다. 6개의 시리즈로 된 '덜어내기'에서는 담벼락에 얽히고 설켜있는 덩굴의 변화를 통한 시간의 흐름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사진작가 이정록씨의 도움을 받아 비워진 공간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 수묵의 느낌을 사진에 담은 '공위의 공'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70-7805-4487.

바람, 놀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세계아리랑축제, 시민축전으로 열려

10월 개최되는 제2회 광주세계아리랑 축전은 뉴미디어와 전통문화가 결합해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21세기형 시민축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광주세계아리랑 축전 개최를 위한 제1차 추진위원회를 열고 강봉규 광주예술인회 이사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 박윤모 시립극단 단장이 주제공연 예술감독을, 손봉채 작가가 축전 예술감독을 맡아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올해 축전은 '가슴으로 함께 부르는 노래'를 주제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동안 옛 전남도청 광장, 광주문화예술회관 등 광주 시내 일원에서 진행한다. 문의 062-670-7495.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